

# '타협적 결론'에 논쟁 증폭 가능성

## ■ 신영철 조사결과 발표

대법원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이 만들어진 파문이 가라앉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분명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신 대법관의 거취도 아직 불투명해 후폭풍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이 사법부의 관료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한 사법부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대법원 판단, 후폭풍 예고=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 집단 반발·추가의혹 우려 '최악 수' 피해가 사법부 관료화가 원인...대응책 마련 나서야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재판개입과 사법행정의 경계에 걸친 신 대법관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위 법관 중에는 이메일 전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을 사법행정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남아 있고, 평판사들 가운데는 명백한 재판개입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아 사법부 내부에서 갈등이 잠복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두고 분명한 판단이 아닌 타협적 결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오히려 논쟁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직 불명확한 신 대법관의 태도도 뇌관일 될 공산이 크다.

신 대법관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 가려 할 경우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옹호를 촉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고위 법관과 평판사들 사이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고 재판 개입을 경계하는 평판사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보이지만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간섭이며 이제 핵

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 실패=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단지 특정 고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부의 관료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 전체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라는 조직 안에서도 재판부마다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부 관료화의 밑바닥에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가 깔려 있어 이번 사태가 빌미가 돼 법관평가 방식에 대수술이 가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부 예멘 폭발테러에서 살아난 한 한국인이 16일 예멘 사나국제공항에서 두바이를 경유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떠나면서 한 예멘 여행사 직원과 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좋아한다" 현지인 떠난 뒤 '쾅'

### '예멘 폭발' 테러에 무계...부상자 3명 등 오늘 귀국

한국인 관광객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예멘 폭발사건과 관련, 한국에서 관광객 일행에 인솔한 여행사 사장이 16일 "누군가 폭발을 터뜨린 것 같다"며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여행을 기획한 테마세이투어의 마케팅 사장은 "관광객과 가이드를 포함, 한국인 18명의 일행이 현지 운전기사들과 함께 지프 6대에 나눠 타고 시밤지역에 관광을 갔다"며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마 사장은 "이날 관광한 곳은 진흙 벽돌로 쌓아 올린 8~9층 진흙 빌딩들이 500개 이상이 붙어 있어 '사막 위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곳"이었다며 "이곳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대부분이 지프에서 내려 일몰과 건물들을 조망하고 있을 때 10대 후반, 40대 후반의 현지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관광객 일부에게 인사하며 말을 걸었다"고 전했다.

마 사장은 "이들은 30분 가량 머물면서 관광객들에게 '어디서 왔나', '우리는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에 가고 싶다' 등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여행 잘하라'고 말하고는 유적지를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부상자 3명을 포함, 관광객 대부분은 두바이를 거쳐 17일 오후 4시 4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억류' 비난 피하되, 개성 '불모' 압박은 계속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중 귀환만 허용키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을 피하되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대남압박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17일부터는 육로통행을 또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 불투명하지만 일단 미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 사실상 억류된 상태는 일단락된 셈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의 처사가 비인도적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북은 우리 측 공단 관계자

### ■北 개성공단 남측 인력 귀환만 허용 까닭은? 한반도 긴장 계속...정부 대응책 고민

의 방북은 계속 차단함으로써 원·부자제 및 현지 체류자의 식량, 난방용 가스 등의 투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개성공단을 카드로 삼은 대남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북측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20일까지인 카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기간에 한정해 한반도의 긴

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성공단 승통 조이기'를 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 적지 않은 관측통들은 북이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카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들은 북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을 포기하든지 그게 싫으면 대북 정책을 전면 전환

### 희생된 광주출신 박봉간씨 가족 '망연자실'

예멘(Yemen) 남동부의 고대 도시 시밤(Shibam)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희생된 광주출신 언론인 박봉간(70·사진)씨의 유족은 16일 갑작스런 비보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박씨를 인솔해 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테마 세이투어' 여행사 사무실과 외교교통상황조사 등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박씨의 큰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예멘에 여행가신 게 맞다"며 "가족들도 경황이 없어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오실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큰딸은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박씨는 지난 9일 밤 11시55분 예미레이트항공 편으로 일행 17명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

박씨 등이 참가한 여행 상품은 9박10일 동안 두바이를 거쳐 예멘의 고대 유적지를 둘러보는 코스였다.

광주출신인 박씨는 전남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에 입사한 후 한국기자협회 전남도지사 지부장, 광주 MBC 상무, 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종형기자 golee@



합격은 김영에서

www.kimyouna.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 김영편입학원

강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105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전남대입시 / 부산대입시 / 서울대입시 / 의대입시 / 의대전문대입시

★ 2010년 합격률을 신기록으로!

편입관리 문자상담 010-7700-1254

대학편입 대기강: 4월 1일

## '실적만큼 수출의 힘' 수상기념 무료체험단모집

● 수상기념: 2009. 1. 14 ~ 2009. 4. 30까지

● 2009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 한정수량! 무료! 무료! 무료! 선착순입니다!

● 선착순 한정수량입니다!

● 신청: http://www.kimyoung.com

● 문의: 02-227-8088

\$20,000

##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1위 재혼전문회사

02-527-3388

### (주)행복출발

02-527-3388